

계간 14호

제14호

## 전환시대 민족사관의 정립을 위하여

## 해외동포 이만애사, 그 유량의 세월

해방전야, 해외 4대세력 무엇을 하고 있었나

## 4월혁명운동기의 반미·통일운동과 민족해방론

특별연구

김정일연구 1 후계자로의 부상과 권력구조 재편

(231) 대구시민총연합회 > 02-53-261  
0142-1464

< 1949년 4월 1일 > 4월 혁명운동기의 반미·통일운동과 민족해방론

한 독립운동이 아니므로 아예 포상신청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독립유공자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 관련자료 쟁기고 포상신청서 써내는 일이 마치 '구걸'하는 것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고 본다. 실제로 독립유공자 중엔 포상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신민당 소속 홍영기 의원이 그 중 한 사람이다.

둘째는 독립유공자포상제도가 독립운동 가사회를 질서도 예절도 모르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주장이다. 이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그래도 '형님! 아우! 선배! 후배!' 하며 친하게 지냈는데 1등급, 2등급 하는 식으로 등급을 나눈 후에는 선후배도 몰라보고 등급으로 상대방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결국 서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상대방을 비방하고 심지어 보훈처에 아첨하는 독립유공자들까지 생겨났으며 소위 '가짜논쟁'도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등급 없이 일괄적으로 '애국지사'로만 표현해 예우해도 그 속에서 저절로 '질서'가 생겨 난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이 제도가 그간 '정치적'으로 너무 오염되어 왔고 또 관련자료나 증언을 바탕으로 시행하다보니 다분히 '산 사람'에게 치우쳐 원래의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다는 주장이다. 같이 독립운동을 했

다고는 하나 살아남은 것이 '특혜'라면 특혜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사람끼리 '죽은 동지'를 제쳐두고 먼저 상받는 것은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즉 산 사람들이 상을 받으려면 적어도 죽은 사람들 포상이 끝나고 난 뒤라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다.

필자는 이같은 '떠도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옮길 뿐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도 속에는 독립유공자들과 보훈당국이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독립유공자들은 어른답게 '품위'를 갖출 필요가 있고 보훈당국은 더이상 '잔꾀'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법으로 정해 실시하는 포상이라면 해당자가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로부터 포상받으려는 사람이라면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는 군재직시 미의회로부터 특별훈장수여 제의를 받고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는데, 그의 거절이유는 "군인의 공훈은 개인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지극히 평범한 한마디였다. 그는 이 '거절'로 또 하나의 공훈을 세운 것은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다.



### 망월동 '흙'과 신미리 '흙'의 만남

민족분단 쓰라린 상처의 상징인 판문점에는 특이한 비석이 세워져 있다. 때때로 대화와 교류의 실날 같은 회망의 창구가 되기도 하지만 군사대립의 정전회담이 열려 일년에도 몇십 차례씩 반복의 실전이 오가는 긴장의 장소인 판문점의 분위기와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대리석 비석이다.

판문점 북측 건조물인 판문각 오른편 야트막한 동산 입구에 세워져 있는 이 대리석 비석은 세워진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 또 북측지역에 있기 때문에 남쪽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듯 싶다. 무언가 중요하고 의미있는 기념물이 들어 있음

직한 대리석합이 앞쪽에 놓여 있는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

#### 통일염원 합토비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가신 애국열사들이 고이 잠든 북의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릉의 흙과 남의 광주 망월동 열사묘소 흙을 하나가 되려는 통일염원에서 이곳 판문점에 합토하였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 참가자 일동

1990년 8월 15일

지난해 8월 열렸던 범민족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던 합토제에서 제막된 비석이다. 비문에 새겨진 대로 남의 광주 망월동묘소의 흙과 평양 신미리 열사릉의

흙이 절절한 통일염원을 담고 분단비극의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다.

몹시도 무더웠던 행사당일 합토제 현장에 있었던 필자는 행사를 참관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다.

당일행사는 남과 북의 흙이 한데 합쳐져 안치된다는 의미에서 전통혼례의식과 제례의식이 적절히 배합된 독특한 예법으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재유럽동포들이 밟기, 주관한 것으로서 특히 북측 참가자들은 흙을 담은 항아리를 들고 있는 남남북녀들이 전통예법에 따라 맞절을 하는 모습; 향을 사루고 재배를 올리는 모습들을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그날 관문점의 매미들이 어찌나 억세게 울어대던지 민족분단의 슬픔을 저들도 느끼는가 싶기도 했지만 나무그늘에서 무심하게 울어제끼는 그 소리가 야속하기조차 했다. 매미들은 북쪽 나무에서 울다 지치면 다시 남쪽 나무로 날아가 쉴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분계선은 너무도 엄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흔해도 아니고 제사도 아닌 기묘한 예식을 보면서 필자의 뇌리에는 “남과 북 열사들의 흙이 담겨져 있는 흙들은 후손들의 정성에 따라 이렇게 합쳐질 수 있는데 과연 남과 북의 현실, 그리고 역사가 합쳐질 그날은 언제일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필자의 감회는 조금 더 진전되면서 유치한 듯 하면서도 너무도 절실한 문제에 부딪쳤다.

“과연 어떤 형태로 통일이 되어야만 광주 망월동묘소와 선미리 애국열사릉이 오

늘과 같이 동격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 남쪽이 북을 흡수통합한다면 진미리 열사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곳에 안치되어 있는 북의 애국열사들을 그대로 열사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반대로 북이 남을 병합하게 된다면 광주 망월동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동작동 국립묘지를 그대로 둘 것인가. 모조리 파헤쳐져 묘소가 풍지박산나지는 않을 것인가.”

분단 45년은 현실적으로 겪는 분단의 아픔뿐 아니라, 이미 역사가 되어버린 과거까지도 서로 쉽게 화합할 수 없는 거리감을 갖게 했던 것이다. 합토제를 기획했던 해외동포들이 남의 국립묘소인 동작동 묘소의 흙이 아니고 광주의 흙을, 또 북 최고권위의 묘소인 혁명열사릉의 흙이 아닌 그보다 한급 아래 애국열사릉의 흙을 합토해야만 했던 것도 이같은 역사의 거리감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 자청해서 찾아본 ‘열사릉’

북에는 국립묘지라 할 수 있는 묘역이 두 개 있다. 하나는 평양시내를 굽어보는 대성산 주작봉 마루에 있는 혁명열사릉이고 다른 하나는 평양시내서 서남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신미리에 자리잡은 애국열사릉이다.

대성산 혁명열사릉에는 이른바 항일무장혁명시기에 전투에 참가했던 조선혁명군 출신 인사들이 안치되어 있고 애국열

사릉에는 김일성 빨치산부대 출신보다는 한 급 처지는(?) 애국지사들이 안치되어 있다.

혁명열사릉에는 김일성 주석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비롯 김책, 김일, 최현 등 빨치산세대 1백여 인물들의 흥상이 세워져 있고 애국열사릉에는 흥명회, 이기영, 김규식, 조소앙씨 등 남에서도 널리 알려진 이들을 포함 2백여 인물들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필자가 신미리 애국열사릉을 처음 찾은 것은 첫번째 방북취재를 행했던 1989년 2월 초의 일이었다. 당시 필자는 첫 방문답게 정치, 경제, 문화뿐 아니라 역사, 예술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왕성한 호기심을 갖추지 않고 안내인이며 만나는 사람마다 귀찮을 정도로 많은 질문을 던졌고 어디든지 가보게 해달라고 졸라대곤 했다.

열사릉을 찾게 된 것은 그 전날 저녁 보았던 영화 때문이었다. 북한 영화계에서는 최고의 역작이라고 자평하는 〈조선의 별〉이라는 영화였다. 김일성 주석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조선의 혁명역사’를 그린 다부작 〈조선의 별〉을 필자는 비디오로 시청했다. 당시 10부까지 나와 있었는데 그날은 4부까지 보았다.

필자의 취향으로 영화는 전반적으로 템포가 느린 듯했지만 북쪽에서 그토록 중요시하는 혁명역사를 실감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진진했다. 이 영화에서는 간헐적으로 들어왔던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나 ‘카를회의’니 ‘조국광복회’니 하는 고유명사들에 대한 설명이 실체

적으로 극화되어 더욱 관심을 갖게 했다. 함께 영화를 본 안내인은 몇 번씩 보았음에도 장면 장면마다에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감동을 받는 눈치였다.

북한주민들에게는 김주석을 위시하여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자신들이 성장하면서 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겨왔던 혁명역사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그들의 언행이 극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로 느껴져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듯했다. 안내인은 영화에 김혁, 차광수, 마동혁, 박금록 등의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그들이 혁명열사릉에 모셔져 있다면서 열을 올려 설명하곤 했다.

때문에 필자는 마침 다음날 오전, 일정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혁명열사릉에 가보자고 요청했다. 어떤 인물들이 그곳에 안치되어 있으며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궁금해서였다. 안내인은 필자가 자청해서 열사릉에 가자고 하는 것이 무척이나 고무적이라고 느꼈는지 너무도 밝은 표정으로 흔쾌히 승낙했다.

### 항일혁명의 ‘주역’ 1백인이 안치

혁명열사릉은 평양 서북쪽 대성산유역 주작봉에 자리잡고 있어 평양시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혁명을 위해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는 1백인이 안치되어 있었는데 단순한 ‘비석’이 아니라 대리석 기단 위에 적동으로 된 흉상들이 놓여 있었다. 혁명열사릉 참관은 그곳에 상근하는 여성강사의 안내로 돌아



▲ 대성산 혁명열사릉 정문 전경

보았는데 그녀는 각 인물들의 개인약력을 과 투쟁경력들을 줄줄이 풀고 있었으며 1백대 열사로 추존, 추앙되는 과정의 에피소드들을 들려주기도 했다.

앞서도 언급한 김책, 최현 등 남에서 보았던 반공극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과 천날 「조선의 별」에서 보았던 김혁 등 몇몇 인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필자에게 생소한 이름들이었다.

필자는 당시 귀로는 안내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눈으로는 홍상들을 둘러보면서 남북한 근대사의 단절현상이 결코 간과할 것이 못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또 김일성부대의 항일무장투쟁이 조작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곳 혁명열사릉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했다. 혹시 이곳에 묻혀 있는 혁명 초기의 인물들

이 대부분 가공의 인물들이거나 조작된 인물들로서 참배객들은 엉뚱한 엉터리 표현에 참배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설명하지 않을까 하는 북측 인사들에게는 불손(?) 하기 짝이 없는 생각까지 했다.

또 그곳에 안치되어 있는 인물들의 투생사가 그토록 간고하고 감동적인 것이라고 인정했을 때 남쪽에서는 전혀 모르는 생소한 인물을 투성이라는 것도 결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필자는 안내강사에게 홍명희, 이기영 등 거물급 월북인사들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안내원은 “그분들은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모셔져 있다”고 했다. 그때 처음으로 열사묘소가 두 군데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필자는 그곳도 가보자고 요청했고 왔던 길을 되짚어 자동차로 약 30분쯤 떨어진 거리에 있는 신미리로 향했다.

애국열사릉은 혁명열사릉보다 경관이며 시설 등이 차져 보였다. 그러나 세번째 방북이 있었던 1990년 8월 애국열사릉을 찾았을 때 함께 간 재미동포 노인 한 분이 신미리 애국열사릉이야말로 명당 중의 명당이라고 격찬하는 것을 들었는데 듣고 보니 그런가 싶기도 했다.

혁명열사릉은 높은 곳에 위치해 탁 트인 전망이 수려하다면 애국열사릉은 오목한 분지 가운데 돌아 있는 곳으로 전형적인 좌청룡 우백호의 배산임수의 명당이라는 것이다. 양쪽으로는 산이 뻗어나가고 있고 뒤쪽에도 병풍처럼 산이 둘러싸고 있으며 앞으로는 훤히 틔어 한참 끝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문외한이 보아도 지세는 아득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한 것이 오묘한 명당이었다.

### 남쪽 애국지사·혁명가도 있어

애국열사릉의 정문이 혁명열사릉의 그것보다 화려하지 않았고 또 각 묘소가 홍상이 아닌 흰 화강암 비석만으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초라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듯싶다. 콘크리트 위에 화강암으로 장식된 정문을 지나 1백 미터쯤 오르면서부터 비석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처음 그곳을 갔을 때 두번째 줄에 있는 김규식 박사의 비석을 발견하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른다.

“아니 김규식 선생도 이곳에 모셔져 있군요.”

“김규식 선생에 대해 잘 아십니까?”  
“민족주의 애국지사 아닙니까.”

당시까지 필자는 홍명희, 이기영씨와 같이 북에서도 활약했던 월북인사라면 모를까 6·25 때 강제로 남북된 것으로 알려진 김규식 선생 같은 이도 애국지사로 추앙받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다. 묘소를 둘러보니 김규식 선생 말고도 조소양, 최동오, 오동진, 양세봉 선생 등 필자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 많아 카메라 셔터를 연방 눌러댔다.

또한 필자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던 것은 조봉암씨의 묘비가 세워져 있는 것이다. 남에서 사형당한 인물의 묘비가 북의 애국열사릉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남과 북의 현실적 거리를 의미하는 서글픈 것이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아는 이름이라는 점에서 일단 반가운 감정이 먼저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조봉암 선생 말고도 남에서 처형된 남로당 간부 김삼룡의 묘비도 눈에 띄었고 1960년대 말 통혁당사건으로 처형된 김종태의 묘비도 있었다. 아마도 이들의 묘소는 비석 밑에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가묘인 듯싶었다.

당시 224명이 안치되어 있었는데 묘비를 돌아보면서 필자를 크게 홍분시켰던 것은 빨치산대장 이현상의 묘비였다. 당시 남한사회에서도 지리산 빨치산에 대한 중언 수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현상은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현상에 대해서는 남에서도 배척되고 북에서도 버림받아 쓸쓸하게 지리산 끝짜기에서 죽어갔다고 알려져 있던 터였다. 이현상의 묘비에는 “리현상동지 남조선혁명가 1905년 9월 27일 생, 1953년 9월 17일 전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애국열사릉의 묘비는 화강암 기단 위에 150센티미터 정도 높이의 흰 대리석으로 모두 통일되어 있었는데 호칭과 사망을 알리는 표현에서 흥미있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혁명열사릉의 묘비에는 모든 안치자를 동지라는 호칭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애국열사릉에서는 동지 이외에도 선생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혁명열사릉 최현의 묘비에는 “최현동지, 조선인민혁명군지휘관, 1907년 6월 8일생, 1924년 항일투쟁에 참가, 1932년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 1982년 4월 9일 서거”로 되어 있는 식으로 모든 안치자들에게 동지라는 칭호와 서거 혹은 전사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애국열사릉의 김규식 박사의 묘비에는 “김규식선생, 애국지사, 1880년 12월 28일생, 1950년 12월 10일 서거”로 되어 있었다. 선생이란 호칭에 서거란 표현을 쓴 것이다. 김규식 이외에도 최동오, 조소양, 양해봉, 조완구 등에게 선생이란 호칭을 썼다. 흥명회, 허현, 이현상, 김상룡, 김종태 등에는 동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사상 및 활동에서 북한 당국과 궤를 같이한 인사와 그렇지 않은

인사를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관점에서 조봉암씨와 이기영씨에 대해서는 선생이란 호칭을 썼던 것이 이해된다. 안내원은 명확히 그 차이를 설명하지 않았는데, 후일 추적한 바에 따르면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사람(남로당과 통합당이 이에 준하는 듯)에게는 동지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다.

### 당적과 연관지어 선생·동지로 구분

1990년 8월 두번째로 애국열사릉을 찾았을 때 얼마전 세상을 떠난 최덕신의 묘비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최덕신 선생,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1914년 9월 17일생, 1989년 11월 16일 서거”로 되어 있어 선생이란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유추해보면 흥명회, 허현씨 등은 노동당에 입당했고 이기영, 최덕신씨 등은 북에서 요직을 지냈음에도 노동당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애국열사릉 묘비에서 사망을 알리는 표현은 서거, 회생, 전사 등 세 가지로 구분돼 혁명열사릉에 비해 회생이란 표현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 김종태, 김삼룡, 조봉암 등에 대해 회생이란 표현을 쓰고 있으며 이현상, 방준표 등에 대해 전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안치자의 직업경력을 알리는 표현 또한 다채로운데 ‘양세봉선생 독립군 사령’, ‘조봉암선생 진보당 당수’, ‘조소양선생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최고의원’, ‘허현동지 김일성종합대학총장’, ‘김삼룡동지 남조선혁명가’, ‘김규식선생 애국지사’, ‘최동오선생 애국지사’로 되어 있으며 ‘김종태 동지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

애국열사릉에는 이밖에도 북한 국가 부주석을 지낸 임춘추에서부터 저명한 작곡가 이면상, 세계여자탁구대회에서 두 번 우승해 체육영웅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젊은 나이로 요절한 박영순 등 북한 내 각계의 인사들이 안치되어 있어 애국열사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었다.

한편 김삼룡 이외에 박현영, 이강국, 이승엽 등 남로당 거물들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알려진 바에 유추해서 이해가 갔지만 김삼룡과 함께 처형된 이주하의 묘비가 없는 것이 의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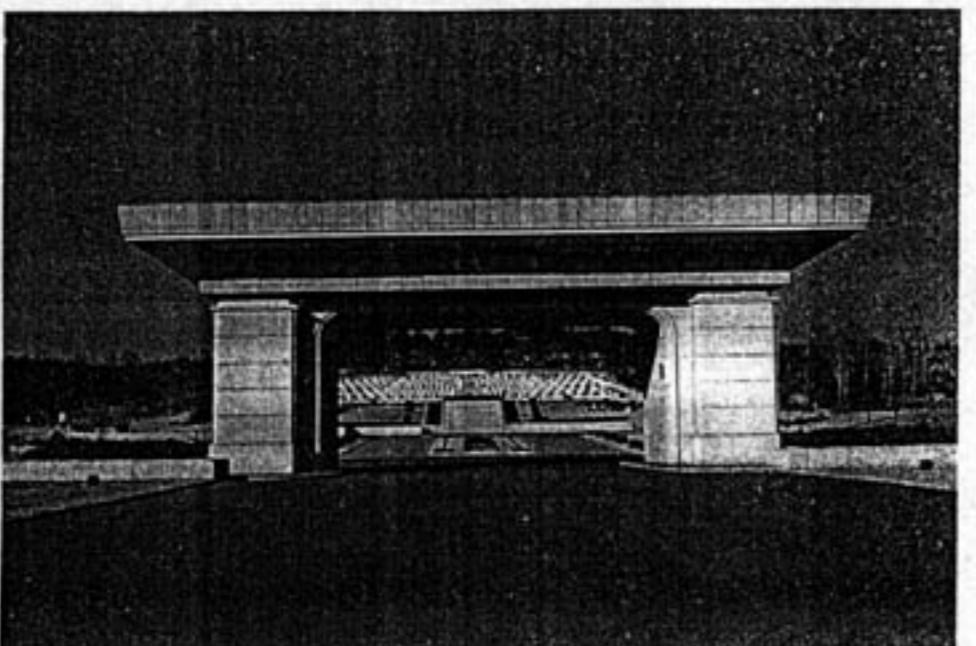
애국열사릉은 지난 1986년 9월 17일 환공했는데 당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애국열사들을 한데 모아 처음에는 190위가 모여졌는데 3년이 지난 1989년 2월에는 약 30여 명이 추가돼 224위가 안치” 되어 있었다. 새로운 안치자, 즉 애국열사가 계속 나올 것을 대비해서인지 아직도 뒤쪽에 공간이 많았다.

### ‘애국주의’가 열사 선정의 기준

북한 사회과학출판사가 1985년 발간한 정치사전에는 애국주의라는 항목이 있다. 거기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상과 감정,

자기 민족과 조국강토,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상과 감정의 총체”로 애국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이어 애국주의는 국가가 발생한 이래 모든 계급이 제창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국가가 있는 한 사람들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단위로 개척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다음부터가 주목되는 설명이다.

“계급사회에서 애국주의는 계급적 성격을 띠게 된다. 애국주의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민족국가를 단위로 생겨나고 발현되는 만큼 해당한 시기의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계급사회에서는 착취계급도 애국주의를 표방한다. 그러나 그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인민대중의 사상감정을 이용하여 저들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착취제도를 유지 공고화하여 괴착취 근로대중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가짜 애국주의다. 착취계급은 자신들 계급적 이익을 위해서는 조국과 인민을 팔아먹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부르주아지들이 제창하는 애국주의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부르주아애국주의다. 자본가들을 다른 나라 영토를 압탈하기 위해, 또는 자기 나라에서의 계급 투쟁을 약화시키기 위해 애국주의 간판 밑에 인민대중에게 조국을 사랑하라고 떠든다. 진정한 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북한 사회과



▲ 신미리 애국열사릉 전경(前景)

학술판사, 1985년 간, 정치사전, 938쪽).

한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부르주아 애국주의를 비롯 온갖 형태의 애국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노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진정한 애국주의로 설명되어 있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노동계급의 계급의식과 민족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키고 있다"고 설명된다. 또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혁명의 길을 개척하고 인민대중의 혁명 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로 이끌으로써 위대한 사회주의 조국을 마련한 위대한 수령에 대한 충실햄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며 또 혁명의 전취물인 사회주의 조국을 용호보위하며 또 이의 부강발전을 위해 몸바쳐 투쟁하는 것에서 나타난다"고 강

조하고 있다. 또 "노동계급의 이익은 본래 국제적인 것이라는 전제 하에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부르주아민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배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같은 책, 442쪽).

이같은 애국 혹은 애국주의에 대한 독특한 입장 위에 애국열사들이 선정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애국열사를 선정 추종하는 일은 북한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최고의 권력집행기관으로 일컬어지는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내각인 정무원은 중앙인민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주석과 부주석들, 그리고 약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공화국 주석으로 되어 있다.

중앙인민위원회 직속기관으로 상훈부가 있어 영웅칭호, 각종표창수여 등을 관장하고 있는데 혁명열사 및 애국열사 추존은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직접 행하며 「정령」이라 해서 중앙인민위원회와 주석의 명의로 발표된다. 북한의 헌법 61조에는 혁명투사, 혁명열사가족, 애국열사가족, 영예군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 애국열사릉에 묻힌 224인

필자는 두번째로 애국열사릉을 찾았던 1990년 8월, 안치자 명단이 없느냐고 안내강사며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만들지 않았다"는 대답이었다. 참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난감하기까지 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얘기인즉 "그냥 애국열사가 나오는 대로 모시면 되지, 구태여 명단을 만들고 그러는 것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아마 중앙관서에는 서류가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따로 명단이나 열사릉 팜플렛을 만든 것은 없다"고 했다.

그날 동행했던 지도원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 누구누구가 모셔져 있는지도 해야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한다는 말이냐"고 따지듯 물었다. "우리아 원래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처럼 선전이나 광고에 익숙치 않아 그저 애국지사 2백여 분이 모셔져 있다고 경배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우리가 누구누구를 이렇게 모시고 있다고 자랑하거나 떠벌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당시 필자는 2백여 명의 명단을 직접 적어오고 싶었으나 일정 때문에 그냥 돌아왔고 그 후 여러 경로를 통해 명단입수를 피해봤으나 뜻을 이를 수 없었다. 그러던 차 지난 4월 말 북한을 방문하는 동포 인사에게 부탁했더니 그 분이 직접 애국열사릉에 가 하루종일을 소비하면서 비석에 새겨진 내용을 모두 손으로 베껴와 마침내 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육필자료에 따르면 1991년 4월 30일 현재 신미리 애국열사릉에는 229명이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최근에 안치된 인사로는 남조선혁명가로 되어 있는 안우생씨가 눈에 띈다. 1907년 6월 8일생인 그는 1991년 2월 22일 서거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안우생씨는 안중근 의사의 인척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육필자료는 김규식 선생 등 월남북인사들이 언제 사망했으며 최종적으로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 알려주고 있다. 열사 명단 가운데 남쪽에도 알려진 이름들을 살펴보면 오동진(반일애국지사) 현준혁(공산당 평남도 책임비서) 허현(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김삼룡(남조선혁명가) 성시백(남조선혁명가) 김규식(애국지사) 리현상(남조선혁명가) 김달삼(남조선혁명가) 방준표(남조선혁명가) 조완구(애국지사) 조봉암(진보당 당수) 조소앙(평통총진협 최고위원) 최동오(애국지사) 홍명희(내각부수상) 김종태(통혁당 서울시위원회 위원장) 최영도(통혁당 전남위원회 위원장) 원홍구(과학원 생물학연구소장 박사) 백남운(최고인민회의 의장) 강

량육(부주석) 이기영(문예총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면상(인민예술가) 엄향섭(평통촉진협상무위원) 최덕신(천도교 청우당 위원장) 등이 눈에 띄인다. 219명 가운데 남조선 혁명가 직책이 명시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12명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조봉암 김종태 등은 진보당 당수라든가 통혁당 서울시위원장 등 구체적 직함으로 명시돼 있어 남에서 사망해 가묘로서 열사릉에 안치된 남쪽 인사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는다.

한 미주동포의 수고로 귀한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앞으로 북한 근현대사에 대한 남한학계의 본격적인 탐구가 있을 것을 기대해 본다. 그 동포는 북에서도 애국열사릉에 관한 안내책자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해주었다.

신미리 애국열사릉 초입의 대형동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 건설, 나라의 통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희생된 애국열사들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1986년 9월 17일

필자는 이 내용이 남에서도 큰 무리없이 용납되고 인정되는 날이 과연 올 것인가 생각해보면 분단의 상처와 고통이 생각보다 깊은 것이라는 감회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쪽에서는 가장 극악한 범죄자로 몰아 처형한 인물들을 다른 한쪽에서는 청사에 길이 빛날 위훈을 남긴 이로 칭송하고 있는 현실.

이 현실을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할 것인지 한민족 성원 모두 지혜를 모을 것을 제창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앞으로 더욱 진전된 남북근현대사에 대한 상호 논의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

#### 애국열사명단

(신미리 애국열사릉, 1991. 4. 30 현재)

양세봉선생 독립군사령  
(1896. 7. 15~1934. 9. 20 희생)  
김보안선생 반일애국지사  
(1894. 1. 26~1940. 9. 25 희생)  
전장원동지 혁명투쟁공로자  
(1906. 4. 28~1942. 11. 22 서거)  
오동진선생 반일애국지사  
(1889. 8. 14~1943. 12. 17 희생)

현준희동지 공산당평남도책임비서  
(1906. 5. 13~1945. 9. 3 희생)  
장중환동지 항일혁명렬사  
(1907. 11. 6~1946. 4. 5 서거)  
리진산선생 민주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  
(1883. 6. 13~1947. 3. 22 서거)  
정만금동지 항일혁명렬사  
(1924. 3. 15~1947. 6. 4 서거)  
리호제동지 남조선혁명가  
(1913. 11. 1~1950. 3. 27 전사)  
김용범동지 당중앙위원회검사위원장

(1902. 8. 18~1947. 9. 7 서거)  
허 현동지 김일성종합대학총장  
(1885. 6. 11~1951. 8. 17 서거)  
김삼룡동지 남조선혁명가  
(1910. 2. 9~1950. 6. 26 희생)  
성시백동지 남조선혁명가  
(1905. 4. 5~1950. 6. 27 희생)  
김달삼동지 남조선혁명가  
(1926. 5. 10~1950. 9. 30 전사)  
김원승선생 애국부사후원회부위원장  
(1877. 5. 15~1950. 10. 9 서거)  
류동열선생 애국지사  
(1880. 3. 26~1950. 10. 18 서거)  
김재수동지 항일혁명렬사  
(1907. 12. 6~1950. 10. 20 서거)  
김규식선생 애국지사  
(1880. 12. 28~1950. 12. 10 서거)  
강규찬동지 남조선혁명가  
(1902. 3. 7~1951. 2. 5 서거)  
조기원동지 혁명시인  
(1913. 11. 6~1951. 7. 31 서거)  
배명훈동지 남조선혁명가  
(1906. 4. 26~1952. 1. 18 전사)  
윤상희동지 남조선혁명가  
(1922. 4. 21~1952. 2. 1 전사)  
한병혁동지 사회안정성 부상  
(1920. 10. 25~1952. 5. 31 서거)  
고재봉동지 혁명투쟁공로자  
(1904. 12. 18~1952. 7. 27 서거)  
김제민동지 항일혁명렬사 (1914. 11~1953. 5. 13 전사)  
리영섬동지 남조선혁명가  
(1912. 9. 12~1953. 7. 15 전사)  
리현상동지 남조선혁명가  
(1905. 9. 27~1953. 9. 17 전사)  
방준표동지 남조선혁명가  
(1906. 4. 8~1954. 1. 30 전사)  
박우현동지 남조선혁명가  
(1910. 10. 19~1954. 2. 28 전사)  
박영발동지 남조선혁명가  
(1913. 6. 12~1954. 3. 19 전사)  
최재하동지 전설상  
(1912. 8. 1~1958. 10. 13 서거)  
리용동지 도시경영상  
(1888. 4. 7~1954. 8. 18 서거)  
조완구선생 애국지사  
(1881. 3. 20~1954. 10. 27 서거)  
김준익동지 항일혁명렬사  
(1891. 4. 22~1954. 11. 29 서거)  
백홍권동지 당중앙위원회 부장  
(1901. 2. 10~1956. 12. 4 서거)  
조봉암선생 전보당 당수  
(1897. 11. 9~1959. 7. 31 희생)  
조소앙선생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최고위원  
(1887. 4. 8~1958. 9. 10 서거)  
윤기섭선생 애국지사  
(1887. 4. 4~1959. 2. 27 서거)  
장철호선생 반일애국지사  
(1891. 3. 17~1959. 3. 16 서거)  
김창준동지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1890. 5. 3~1959. 5. 7 서거)  
오하영선생 애국지사  
(1879. 4. 5~1960. 9. 2 서거)  
김현제동지 항일혁명렬사  
(1909. 10. 17~1960. 10. 16 서거)  
김계림동지 내각 제품검사국 국장  
(1906. 4. 28~1961. 11. 14 서거)  
최백근동지 전남선조사회당조직부장  
(1914. 2. 20~1961. 12. 21 희생)  
김시우선생 혁명투쟁 공로자  
(1895. 3. 3~1962. 4. 1 서거)  
리 취동지 혁명투쟁 공로자

## 110 8·15 특별기획

(1900. 8. 2~1963. 6. 5 서거)  
박정호동지 남조선혁명가  
(1901. 3. 13~1959. 5. 6 희생)  
강진건동지 혁명투쟁 공로자  
(1885. 1. 6~1963. 5. 15 서거)  
강영창동지 과학원 원장  
(1912. 10. 1~1965. 8. 2 서거)  
최동오동지 애국지사  
(1892. 6. 22~1963. 9. 16 서거)  
류연화동지 당중앙위원회 경영위원회 부위원장  
(1898. 1. 1~1964. 11. 12 서거)  
한동백선생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1900. 6. 1~1965. 5. 2 서거)  
정로식선생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부위원장  
(1891. 12. 29~1965. 7. 12 서거)  
김은순동지 제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위원장  
(1910. 9. 17~1965. 9. 15 서거)  
김한구동지 항일혁명렬사  
(1909. 3. 4~1965. 9. 15 서거)  
김옥성동지 작곡가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인  
민예술가  
(1916. 6. 30~1965. 10. 25 서거)  
권인선동지 항일혁명렬사  
(1918. 2. 25~1967. 4. 10 서거)  
계용상선생 과학원 창학연구소 소장 원사·박  
사·교수  
(1893. 12. 27~1967. 4. 24 서거)  
김광빈동지 당중앙위원회 부장  
(1905. 8. 2~1967. 5. 10 서거)  
홍춘수동지 항일혁명렬사  
(1894. 2. 29~1967. 6. 12 서거)  
권춘만동지 항일혁명렬사  
(1920. 5. 26~1968. 3. 24 서거)  
남동수동지 항일혁명렬사  
(1915. 1. 2~1968. 4. 20 서거)  
최봉호동지 항일혁명렬사

(1905. 7. 11~1968. 6. 9 서거)  
장진석동지 종합대학 교원 후보원사·교수  
(1912. 10. 25~1968. 8. 30 서거)  
강명근동지 혁명투쟁 공로자  
(1901. 3. 3~1968. 11. 23 서거)  
최성세동지 내각설계총국 참의  
(1915. 4. 30~1968. 12. 19 서거)  
홍명희동지 내각부수상  
(1888. 7. 3~1968. 3. 5 서거)  
리주연동지 내각부수상  
(1904. 7. 17~1969. 8. 20 서거)  
김갑순동지 철도상  
(1927. 3. 9~1969. 1. 16 서거)  
김종태동지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 위원장  
(1926. 11. 24~1969. 7. 10 희생)  
최영도동지 통일혁명당 전라남도위원회 위원장  
(1923. 4. 5~1969. 1. 25 희생)  
김태근동지 전기석탄공업상  
(1914. 7. 3~1969. 3. 26 서거)  
태율민동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배우 인민배우  
(1916. 11. 6~1969. 5. 10 서거)  
안용각동지 내각사무국장  
(1923. 9. 26~1969. 5. 20 서거)  
전봉서동지 항일혁명렬사  
(1916. 6. 23~1969. 7. 24 서거)  
리용구동지 항일혁명렬사  
(1915. 1. 19~1970. 2. 10 서거)  
김원빈동지 수산상  
(1927. 3. 29~1970. 8. 16 서거)  
원홍구선생 과학원생물학연구소소장 후보원  
사·박사·교수  
(1888. 4. 8~1970. 10. 13 서거)  
리봉겸동지 평양시당 제2비서  
(1927. 7. 29~1971. 1. 31 서거)  
최윤수동지 재정상  
(1923. 3. 14~1971. 6. 15 서거)

박문규동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1906. 2. 24~1971. 10. 15 서거)  
윤태홍동지 항일혁명렬사  
(1916. 4. 1~1971. 5. 14 서거)  
한정식동지 조선인민군 장령  
(1927. 8. 5~1971. 10. 22 서거)  
최봉승동지 항일혁명렬사  
(1912. 5. 9~1972. 2. 9 서거)  
오제룡동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1924. 1. 19~1972. 4. 22 서거)  
리경석동지 당중앙위원회 부장  
(1925. 11. 10~1972. 12. 19 서거)  
정준택동지 정무원부총리  
(1911. 1. 12~1973. 1. 11 서거)  
송승필동지 항일혁명렬사  
(1912. 1. 21~1972. 7. 21 서거)  
류영준동지 조국전선 의장  
(1890. 11. 24~1972. 9. 18 서거)  
김명숙동지 항일혁명렬사  
(1906. 5. 2~1972. 10. 26 서거)  
최원택동지 조국전선 의장  
(1895. 7. 18~1973. 3. 17 서거)  
최상권동지 당중앙위원회 부장  
(1929. 11. 16~1973. 7. 10 서거)  
김경인동지 당중앙위원회 부장  
(1917. 2. 23~1974. 9. 12 서거)  
석덕용동지 항일혁명렬사  
(1887. 6. 27~1973. 9. 8 서거)  
김종석동지 항일혁명렬사  
(1898. 2. 21~1974. 12. 23 서거)  
리 찬동지 혁명시인  
(1910. 1. 15~1974. 1. 5 서거)  
김동일동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1930. 10. 28~1975. 2. 21 서거)  
신동설동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1935. 5. 25~1975. 3. 13 서거)

위창진동지 조선인민군 제1부총참모장  
(1929. 10. 20~1975. 11. 30 서거)  
최 일동지 헌병투쟁 공로자  
(1905. 12. 12~1976. 1. 2 서거)  
박우설동지 항일혁명렬사  
(1917. 3. 14~1976. 3. 22 서거)  
김두삼동지 내각설계총국장  
(1911. 9. 14~1976. 5. 21 서거)  
최일화동지 혁명투쟁 공로자  
(1893. 8. 11~1976. 4. 20 서거)  
오영봉동지 당중앙검열위원회 부위원장  
(1921. 5. 21~1976. 2. 28 서거)  
오대희동지 혁명투쟁공로자  
(1880. 9. 20~1976. 6. 11 서거)  
지경수동지 항일혁명렬사  
(1917. 12. 9~1976. 8. 25 서거)  
홍원길동지 정무원 부총리  
(1925. 7. 3~1976. 5. 16 서거)  
남 일동지 정무원 부총리  
(1913. 6. 5~1976. 3. 7 서거)  
지병학동지 항일혁명렬사  
(1917. 5. 24~1977. 2. 28 서거)  
황내익동지 대회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1926. 2. 8~1976. 10. 6 서거)  
최동혁동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1934. 2. 6~1976. 12. 3 서거)  
송 영동지 작가  
(1903. 5. 24~1977. 1. 3 서거)  
고준태동지 조국전선 의장  
(1896. 2. 18~1977. 3. 6 서거)  
최민철동지 항일혁명렬사  
(1917. 10. 19~1977. 5. 28 서거)  
강장수동지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1930. 8. 13~1977. 6. 15 서거)  
리종만선생 조국전선 의장  
(1885. 1. 14~1977. 1. 17 서거)

리병남동지 보건상 (1903. 12. 9~1977. 2. 18 서거)	최용준동지 당중앙위원회 위원장 과장 (1926. 1. 25~1979. 12. 20 서거)	(1904. 12. 7~1983. 1. 9 서거)	량광일동지 통일혁명당 지도성원 (1906. 10. 2~1985. 2. 12 서거)
박 혁동지 통일혁명당 지도성원 (1925. 10. 13~1977. 7. 29 서거)	김룡화동지 항일혁명렬사 (1905. 9. 25~1980. 1. 1 서거)	김건환동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1921. 1. 30~1981. 9. 21 서거)	조도연동지 항일혁명렬사 (1903. 10. 3~1985. 4. 3 서거)
허재복동지 만수대예술단 단장 인민배우 (1931. 12. 24~1977. 8. 9 서거)	김정필동지 항일혁명렬사 (1907. 12. 19~1980. 4. 4 서거)	로익명동지 평남도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1908. 3. 26~1982. 1. 24 서거)	주재일동지 항일혁명렬사 (1915. 11. 11~1985. 4. 17 서거)
한용서동지 혁명투쟁 공로자 (1909. 9. 22~1978. 3. 17 서거)	정 응동지 혁명투쟁 공로자 (1907. 4. 10~1980. 7. 29 서거)	류보영동지 항일혁명렬사 (1896. 5. 15~1982. 2. 18 서거)	김두영동지 정무원 부총리 (1922. 12. 24~1985. 9. 11 서거)
안 영동지 항일혁명렬사 (1903. 12. 15~1978. 4. 7 서거)	김지명동지 항일혁명렬사 (1905. 5. 22~1980. 8. 25 서거)	김충렬동지 항일혁명렬사 (1918. 11. 6~1982. 10. 22 서거)	차계룡동지 영화인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1924. 11. 2~1985. 7. 10 서거)
리영호동지 항일혁명렬사 (1910. 7. 4~1978. 2. 14 서거)	김길현동지 독일주재 조선대사 (1929. 6. 8~1980. 8. 28 서거)	박 학동지 백두산창작단 연출가 인민배우 (1914. 11. 6~1982. 11. 11 서거)	리종목동지 외교부 제1부부장 (1928. 7. 31~1985. 7. 15 서거)
김유길동지 항일혁명렬사 (1909. 9. 20~1978. 4. 25 서거)	령룡삼동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1933. 1. 20~1980. 11. 1 서거)	김일대동지 과학원 원장 (1932. 6. 7~1983. 9. 25 서거)	김순일동지 군사종합대학 제1부총장 박사·교수 (1925. 11. 26~1985. 8. 29 서거)
장상룡동지 항일혁명렬사 (1905. 2. 27~1978. 6. 20 서거)	김규동동지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의사 박사 (1900. 2. 11~1980. 12. 10 서거)	리화영동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1930. 12. 30~1983. 10. 9 서거)	리관선생 반일애국지사 (1897. 1. 22~1985. 10. 30 서거)
리만규동지 조국통일사 사장 (1889. 12. 2~1978. 7. 13 서거)	최달형동지 혁명투쟁 공로자 (1896. 3. 15~1981. 5. 25 서거)	김치구동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1930. 2. 28~1983. 10. 9 서거)	박임태동지 도시관리부 고문 (1922. 3. 24~1985. 11. 6 서거)
리립득동지 혁명사적지도국 부국장 (1925. 7. 24~1978. 8. 4 서거)	김영식동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1928. 8. 2~1981. 6. 16 서거)	최철웅동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1936. 2. 29~1983. 10. 10 서거)	장윤필동지 농근병 중앙위원회 위원장 (1916. 7. 10~1985. 12. 9 서거)
리국진동지 항일혁명렬사 (1905. 12. 23~1978. 8. 10 서거)	심창완동지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1932. 11. 22~1981. 5. 28 서거)	조동섭동지 전기석반공업상 (1920. 3. 5~1983. 3. 29 서거)	변달환동지 혁명투쟁 공로자 (1899. 6. 25~1985. 12. 29 서거)
리극로동지 조국전선 의장 (1893. 8. 28~1978. 9. 13 서거)	김병식동지 평양시 건설총국장 (1917. 12. 26~1981. 7. 11 서거)	정관철동지 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인민예술가 (1916. 11. 23~1983. 12. 2 서거)	김명숙동지 항일혁명렬사 (1912. 7. 15~1986. 1. 23 서거)
정일룡동지 내각부수상 (1912. 7. 3~1978. 1. 14 서거)	리유식동지 국토건설성 부상 (1909. 2. 12~1981. 6. 22 서거)	동민광동지 임업부장 (1924. 11. 25~1984. 2. 11 서거)	리명선동지 항일혁명렬사 (1922. 11. 18~1986. 3. 4 서거)
로태석동지 칭무원 부총리 (1919. 8. 25~1979. 12. 31 서거)	염보배동지 혁명투쟁 공로자 (1887. 12. 11~1981. 9. 4 서거)	류준경동지 혁명투쟁 공로자 (1916. 3. 13~1984. 11. 6 서거)	김정희동지 내각도시설계획국장 (1921. 7. 9~1975. 11. 2 서거)
김석기동지 함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1925. 3. 10~1978. 12. 1 서거)	김광진동지 사회과학원 연구사 원사·박사·교수 (1903. 6. 23~1981. 9. 10 서거)	리기영선생 문예총 중앙위원회 위원장 (1895. 5. 29~1984. 8. 9 서거)	천세봉동지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1915. 2. 10~1986. 4. 19 서거)
허상렬동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1930. 6. 24~1978. 11. 19 서거)	박정선동지 항일혁명렬사 (1893. 1. 18~1981. 9. 19 서거)	최율봉동지 조선인민군 장령 (1933. 5. 5~1984. 11. 17 서거)	송학근동지 과학원 실험생물학연구소 소장 원사·박사·교수 (1927. 3. 14~1986. 6. 18 서거)
현 철동지 항일혁명렬사 (1905. 8. 18~1979. 2. 2 서거)	김만금동지 청무원 부총리 (1911. 3. 13~1984. 11. 2 서거)	김윤진동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1927. 2. 28~1984. 12. 26 서거)	김신숙동지 중앙역사박물관 관장 박사·교수 (1927. 4. 16~1986. 7. 5 서거)
백남운동지 최고인민회의 의장 (1897. 3. 19~1979. 6. 12 서거)	강랑욱동지 부주석 (1909. 3. 13~1985. 1. 8 서거)	제주선동지 혁명투쟁 공로자 (1909. 3. 13~1985. 1. 8 서거)	



김좌혁동지 항일혁명렬사  
(1916. 2. 3~1986. 4. 5 서거)  
청동칠동지 국가검열위원회 위원장  
(1909. 2. 28~1986. 11. 17 서거)  
오도혁동지 건설국장  
(1921. 11. 26~1986. 12. 4 서거)  
로병우동지 천 충현부의장 국토건설상  
(1912. 11. 12~1987. 1. 27 서거)  
황순신동지 혁명투쟁 공로자  
(1916. 1. 12~1987. 2. 23 서거)  
윤명근동지 경제위원회 위원장  
(1928. 5. 5~1987. 3. 17 서거)  
김자련동지 항일혁명렬사  
(1912. 10. 5~1987. 4. 1 서거)  
김명화동지 항일혁명렬사  
(1903. 12. 20~1987. 5. 7 서거)  
박영순동지 노력영웅·인민체육인 세33차·34  
차 세계탁구선수권 보유자  
(1956. 8. 22~1987. 7. 14 서거)

◀ 혁명열사릉은 애국열사릉과 달리  
비석 위에 흥상이 세워져 있다

주종의동지 화학공업성 부상  
(1898. 4. 25~1955. 9. 27 서거)  
리오송동지 항일혁명렬사  
(1925. 2. 4~1989. 6. 1 서거)  
김진영동지 만수대예술단지휘자 인민배우  
(1926. 8. 26~1989. 6. 20 서거)  
리면상동지 음악가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인  
민예술가  
(1908. 4. 8~1989. 6. 25 서거)  
박광선동지 항일혁명렬사  
(1914. 1. 28~1989. 9. 21 서거)  
황 철동지 국립연극극장 총장 인민배우  
(1912. 1. 11~1961. 6. 9 서거)  
박민구선생 반일애국지사  
(1894. 6. 1~1962. 9. 10 서거)  
김광운동지 항일혁명렬사  
(1912. 6. 1~1965. 4. 1 서거)  
전운필동지 혁명투쟁 공로자  
(1906. 2. 17~1971. 6. 19 서거)

리경선동지 당위원회 부장  
(1937. 11. 26~1987. 8. 14 서거)  
박영순동지 항일혁명렬사  
(1905. 10. 19~1987. 8. 18 서거)  
리진수동지 국가보위부장  
(1920. 9. 11~1987. 8. 23 서거)  
김개현동지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한  
사  
(1927. 5. 20~1987. 11. 22 서거)  
김종항동지 고등교육상  
(1914. 5. 7~1987. 11. 2)  
강제하선생 반일애국지사  
(1888. 3. 10~1933. 9. 13 희생)  
박임선동지 노동성 부상  
(1914. 8. 24~1951. 12. 5 전사)  
박정덕동지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참모장  
(1918. 9. 12~1952. 10. 11 전사)  
주창선동지 항일혁명렬사  
(1896. 3. 21~1972. 6. 21 서거)  
리재복동지 평양의학대학 교수·박사  
(1909. 4. 4~1982. 7. 17 서거)  
리용순동지 건설건재공업위원회 부위원장  
(1921. 9. 5~1988. 4. 25 서거)  
김창덕동지 항일혁명렬사  
(1903. 6. 6~1988. 5. 24 서거)  
신철종동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1931. 12. 5~1988. 6. 12 서거)  
김춘삼동지 조선노동당연락소 소장  
(1914. 2. 10~1988. 7. 3 서거)  
윤치호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  
(1928. 5. 21~1988. 7. 28 서거)  
김병식동지 항일혁명렬사  
(1924. 1. 1~1988. 8. 5 서거)  
김룡근동지 항일혁명렬사  
(1915. 9. 17~1988. 8. 5 서거)  
문동건동지 충현부의장  
(1926. 11. 22~1988. 5. 26 서거)  
고용대동지 림업성 제1부상  
(1917. 2. 12~1987. 6. 2 서거)  
안동수동지 공화국영웅, 조선인민군대파  
(1920. 8. 6~1950. 7. 6 전사)  
엄항섭선생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  
(1898. 10. 15~1962. 7. 30 서거)  
류한중동지 항일혁명렬사  
(1887. 5. 5~1949. 4. 17 서거)  
최봉칠동지 항일혁명렬사  
(1917. 7. 14~1951. 4. 25 전사)  
박승남동지 항일혁명렬사  
(1915. 1. 22~1954. 8. 25 서거)  
리병훈동지 조선인민군 제11호중앙병원 원장,  
박사  
(1902. 2. 1~1970. 1. 7 서거)  
한홍정동지 수매왕정성 부상  
(1907. 9. 24~1970. 3. 11 서거)  
김이훈동지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1922. 2. 17~1988. 6. 25 서거)  
홍동칠동지 정무원 국장  
(1905. 1. 16~1990. 2. 7 서거)  
김원주동지 항일혁명렬사  
(1927. 9. 27~1957. 6. 28 서거)  
김명준동지 항일혁명렬사  
(1917. 8. 17~1990. 3. 1 서거)  
임춘추동지 항일혁명렬사, 부주석  
(1912. 3. 8~1988. 4. 27 서거)  
오재원동지 항일혁명렬사  
(1923. 3. 8~1988. 11. 30 서거)  
최덕신선생 천도교청우당중앙위원회 조국평화  
통일위원회 부위원장  
(1914. 9. 17~1989. 11. 16 서거)  
남창수동지 항일혁명렬사  
(1913. 2. 11~1950. 10. 10 전사)  
— 강점구동지 수산위원회 위원장  
(1926. 11. 22~1988. 5. 26 서거)  
고용대동지 림업성 제1부상

(1918. 5. 20~1984. 10. 17 서거)	(1917. 12. 17~1990. 11. 23 서거)
안신영동지 혁명투쟁공로자	리덕구동지 남조선혁명가
(1912. 6. 9~1988. 10. 22 서거)	(1920. 4. 3~1949. 6. 7 화생)
전문육동지 항일혁명렬사	리 영동지 최고인민회의 의장
(1917. 9. 27~1989. 4. 24 서거)	(1889. 4. 1~1960. 8. 13 서거)
석윤기동지 작가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관섭동지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1929. 10. 22~1989. 4. 28 서거)	(1923. 11. 25~1990. 12. 27 서거)
도상록선생 김일성종합대학 원사, 교수, 인민 과학자	리종두동지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순환기전문병 원 의사, 박사, 교수
(1903. 10. 13~1990. 2. 13 서거)	(1914. 8. 14~1991. 1. 22 서거)
리원범동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성국동지 항일혁명렬사
(1926. 12. 23~1990. 7. 1 서거)	(1920. 4. 5~1991. 1. 30 서거)
김길룡동지 조선인민군 장령	김주영동지 해외동포영접부 고문
(1927. 3. 8~1990. 7. 2 서거)	(1923. 3. 2~1991. 2. 12 서거)
허남기 총련문학예술가동맹 위원장	안우생선생 남조선혁명가
(1918. 6. 24~1988. 11. 17 서거)	(1907. 6. 8~1991. 2. 22 서거)
리복만동지 최고사령부군악단 단장 인민배우	최영진동지 문화예술부 문화보존총국 부총국장
(1931. 12. 28~1990. 8. 7 서거)	(1915. 9. 2~1991. 3. 24 서거)
박명빈동지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비뇨기전문병 원 원장, 원사, 박사, 교수, 인민의사, 명의사	안정숙동지 항일혁명렬사
(1932. 3. 25~1990. 10. 31 서거)	(1910. 12. 21~1989. 5. 12 서거)
김대홍동지 항일혁명렬사	김철호동지 항일혁명렬사
	(1912. 9. 28~1989. 4. 3 서거)

100

자주적 공산주의자

## 이재유의 혁명노선과 '좌익전선' 운동

안태정

한국역사연구회 회원

어 조선공산주의운동사에 남긴 발자취가  
남달리 뚜렷하다고 잠정적으로나마 평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sup>1</sup> 이 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  
기 위해서 먼저 이재유의 혁명노선을  
193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그 변화양  
상을 살펴보고, 다음에는 이재유의 당재  
건방법론과 당재건의 전제로서의 '좌익전  
선' 운동을 당시 '다른 운동노선'에 있던  
국제파의 그것과 대비하고 관련시켜 그  
특징을 부각시켜 보겠다.

### 1. 머리말

일제식민지시대든 분단시대든 간에 공  
산주의자의 본연의 임무는 노동자와 민중  
의 민족적 계급적 해방투쟁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공산주의  
자는 당이 없으면 당을 건설해야 하고 당  
이 있으면 그것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이  
와 동시에 올바른 혁명노선을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공산주의자를 올바르  
게 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현재 우리가 이재유에 대해 관심을 가  
지는 것은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1930  
년대(1933~36년) 전후반기에 걸쳐서 위  
와 같은 공산주의자로서의 임무를 국내외  
정세변화에 대응해서 일정하게 수행해내

### 2.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 노선

선계급문제 후민족문제 해결  
1930년대 전반기 국내의 사회주의자들